

“영산강유역환경청 하나마나 점검”...국감서 못매

가축분뇨 배출 1만 농가 중 79곳만 형식적 점검

항공 수질감시 용역 ‘녹조 있나없나’ 색깔 확인만

화학사고 평균 사상자 전국 최다지만 대처 ‘하세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기를 이용한 수질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1만955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 수 중 79곳만 점검해 단속률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점검 대상 중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8곳으로 나타나 적발률은 22.7%였다.

전국적으로는 가축 분뇨처리시설 7만 3903곳이 있으며 이중 점검을 받은 업체는 689곳이다. 단속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2.1%였으며, 이어 한강유역·새만금지방환경청 각 1.4%, 원주지방환경청 0.9%, 영산강, 대구지방환경청 0.5%, 금강유역환경청 0.4% 순이었다. 또한 단속 대비 적발률은 18%로 나타나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 의원은 “환경청은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다”며 “각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역 환경청이 외주업체에 맡기는 항공 수질감시는 물 색깔만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을 포함한 8개 지방환경청이 ‘무지개세상’이라는 똑같은 업체에 항공 수질감시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제출한 항공일지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항공감시를 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는 모두 강물 색깔만 확인하는 녹조 감시가 전부였으며 이마저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원 탑승인원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 감시를 하는 날 항공기 교육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의 질문에 8개 환경청장은 나란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대답해 질책을 받았다. 하 의원은 “환경청 직원이 동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탁 업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겠나”며 “환경청에도 강물 수질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세금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항공 수질감시를 없애라”고 질타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청이 운영하고 있는 합동방재센터 출동 현황을 보여주며 30분 이내 현장도착율이 2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3일 영산강환경청은 환경청으로부터 110km 떨어진 황산정수장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16분이 걸려 예상소요시간(1시간40분)보다 30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4월9일 1시간10분 거리의 출동지역까지 실제 3시간45분이 걸려 질타를 받

았다. 주말인데다가 직원들이 청사에 복귀한 후 출동한 게 원인이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아 제시한 지난 5년간(2012년~2017년5월) 화학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8건이 발생해 전국 7개 환경청 중 5위였다. 하지만 사상자는 118명으로 사고 1건당 사상자 3.1명이었다. 이는 7개 환경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다음으로는 대구 2.29명, 한강 1.4명, 새만금 0.9명 순이었다.

조병욱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직원들이 환경청에 복귀해 현장으로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화학사고는 초동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소방서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환경부 조사 결과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는 176종 38만2919마리로 확인됐다. 강진만을 찾은 철새들이 집단 군무를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 겨울철새 가장 많이 찾은 곳 영암호·금호호 順

<7883마리> <5850마리>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미검출

철새에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10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는 176종 38만2919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13~15일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 80곳에서 조사한 결과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래한 겨울철새 중 기러기류가 19만4959마리로 전체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리류가 9만7840마리로 25.5%다.

이는 186종 50만 개체가 관찰된 지난해에 비해 12만 개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민감종인 오리·기러기·고니류의 도래 개체(29만)는 2016년(32만)과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영암호에서 가장 많은 36종 7883마리가 관찰됐으며 금호호 43종 5850마리, 순천만 45종 4912마리, 강진만 37종 1776마리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황룡강에 12종 178마리가 온 것으로 관찰됐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10월 말부터 오리류가 본격 도래하는 12월~2018년 1월 사

이에 최대 개체군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최대 133만 마리가 관찰됐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경부는 오는 10월말부터 대규모 철새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환경청과 연계해 AI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도 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와 주변 도로에서 차단방역을 운영하고 있다. 죽은 철새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조류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

포유류 호랑이·조류 수리부엉이 “최고 인기동물 나야 나”

식물 나무부문 1위 소나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국립생물자원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생물 101’ 대국민 투표 결과 ‘국민이 직접 뽑은 우리생물 토폰’(Top 10)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두 1만3500명이 각각 10개 생물종에 투표한 결과 포유류 1위는 호랑이(2427표)로 뽑혔다. 이어 ▲조류부문은 수리부엉이(1987표), ▲양서류·충류 청개구리(4030표), ▲어류 고등어(2536표), ▲곤충 나비(2378표), ▲꽃물범(2674표), ▲나무 소나무(2286표), ▲해조류 김(2712표), ▲균류 영지(2199표) 등이 각각 최종 1위에 선정



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호랑이·수리부엉이 등 비교적 큰 동물을 선호했다”며 “수리부엉이와 소나무는 투표 초반 일찌감치 1위를 확정지었던 반면, 포유류에서는 호랑이·돌고래·다랑어고지 경합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등올림픽축제·팔영산 달빛영화관 등 다채

11월5일까지 국립공원 주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는 11월5일까지를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으로 정하고 공영·사진전 등 5개 분야 128개 탐방문화행사를 펼친다.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은 무등산·지리산을 포함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며,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무등산 중심사 일대에서는 오는 31일 열리는 무등올림픽축제를 비롯해 시낭송회 ‘시가 끌리는 무등산’(27일), ‘숲 속 작은 음악회-오페스타’(28일)이 열린다.

화순군 일대 무등산 동부 지역에서는 27~29일 국립공원사진전, 국립공원체합부스를 운영한다.

11월5일까지 지리산 남부권(피아골 일대)에서도 국립공원사진전, 국립공원장터 등이 마련됐다.

내장산과 맞닿아 있는 장성군 백양사 일대도 27~29일 버스킹공연, 인문학콘서트전시회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28일 고흥 팔영산야영장에서 달빛 영화관이 열리고, 여수 항일암 일원에서는 25·30일 국립공원생태관광이 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미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